

“순천 미래 동력 발굴”... 국비 확보 ‘반 박자 빠르게’

시, 5~6일 부서 융복합 업무보고회... ‘생태·문화·경제·정주’ 현안 논의 국가해양정원·승주 바이오산단 등 2025년 지역특화 국비 발굴 계획도

‘남해안벨트 중심 도시’를 내건 순천시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후 미래 동력 발굴에 나선다.

순천시는 ‘생태·문화·경제·정주’ 4개 분야로 나눠 5~6일 이틀에 걸쳐 부서 융복합 업무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 첫날에는 생태·문화 분야 보고를 하고, 6일에는 경제·정주 분야 보고를 이어갔다. ‘융복합 업무 보고’는 부서 칸막이를 없애 2023정원박람회 이후 미래동력 발굴에 집중하자는 의지를 담았다. 국·소별로 비슷한 중복 사업을 미리 발견하고, 우선 순위를 조정하는 효과도 노렸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정원박람회 이후 순천시가 펼칠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토의도 진행했다.

앞서 순천시는 지난달 28일에 순천시의 미래상과 행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전 워크숍’을 열어 미래 먹거리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사전 워크숍에서 ‘박람회 전후,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미래 구상을 발표했다.

사전 워크숍에서 나온 내용은 순천시 국·소별 토론 등을 거쳐 이번 부서 간 융복합 업무 보고로 이어졌다.

생태·문화·경제·정주 4개 분야로 나눈 세부 과제는 순천시의 현안과 중점적으로 이어졌다.

생태 분야에서는 순천만습지를 잇는 국가해양정원을 완성하고, 동천 국가하천을 조성하자는 핵심 사업이 담겼다. ‘탐사르 습지도시’인 순천시는 동천하구 습지를 복원할 계획도 세웠다.

문화 분야 핵심 사업에는 ‘에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문화 복합시설·차세대 공공 자원화 시설 건립’ 등이 포함됐다.

승주 바이오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등 미래 첨단 산업 육성은 경제 분야를 이끌 현안이 됐다.

지역연결형 공공의료체계를 확립하고, 대중교통·자전거·보행이 편한 ‘대자보 도시’를 만들어 정주 여건을 개선하자는 논의도 이뤄졌다.

순천시는 이번 업무 보고회에서 2024년 신규 시책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2025년 지역특화 국비 발굴 계획도 함께 논의했다.

민선 8기 공약사업과 국정 과제를 연계하는 지역특화 사업을 발굴해 ‘반 박자’ 빠른 국비 확보 활동을 벌이겠다는 취지다.

순천시는 2025년도 국비 건의사업의 90% 이상을 정부 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25년 국고 건의 현안사업을 미리 발굴해 전남도 중기 재정계획과 국가재정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달까지 국회 증액사업 선정 대응 전략을 마련해 다음달부터는 순천시장이 국회를 수시 방문하며 국고 확보에 힘쓴다.

이틀간 업무 보고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부서별 검토와 예산 반영 과정을 거쳐 내년 새해 업무 보고에서 세부 실행계획으로 구체화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데는 세상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와 생태



순천시(시장 노관규·왼쪽 두번째)가 5~6일 이틀간 ‘2024 주요 업무 보고회’를 열어 현안 사업 추진 상황과 지역특화 국비 발굴 계획 등을 논의했다. (순천시 제공)

등 기본적 분야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직자들부터 미래를 내다보는 눈과 생각의 높이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문화관광재단’ 설립 가시화... 첫 토론회

총 4회차 토론회 계획

곡성문화관광재단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곡성군은 최근 실과소원장과 읍면장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곡성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가칭 곡성문화관광재단은 선진감각차마 등 관광시설 운영에 행정인력 소모가 늘어나고, 관광도시로 더 큰 발전을 위해 별도의 조직 구성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군은 연초 조직개편을 통해 관광재단TF팀을 구성하고 재단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직원들과 함께 곡성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필요성과 지역에 맞는 방향 설정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총 4회에 걸친 토론회를 계획 중이다.

1회차부터 3회차까지는 실과소원장과 읍장 23명을 대상으로, 4회차는 관련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날 1차 토론회에선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의 강신겸 원장의 강의가 진행됐다. ‘지역관광 전담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주제로 최근 문화관광의



곡성군이 지난 5일 제1차 곡성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곡성군 제공)

흐름과 전담조직의 특징에 대해 강의하고, 질의응답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2·3차 토론회에서는 곡성군 문화관광 흐름과 현황에 대한 설명 후 재단 설립 필요성과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4차 토론회에서는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재단 설립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재단 설립이라는 난제에 대해 직원 간에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곡성군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

여수 남산동 수산시장 공영주차장 유료화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달부터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지난 1일부터 남산동에 새로 조성된 수산시장 공영주차장 무료 운영을 종료하고 유료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남산동 수산시장 공영주차장(사진)은 예 2층 건물형 주차장으로 3607㎡의 넓이에 148면의 주차 면수를 갖췄다.

공단은 지난달 10일부터 공영주차장의 운영을 맡아 31일까지 무료 시범 운영을 실시 했다.

수산시장 공영주차장은 1급지 공영주차장으로 코로나 종식 시점까지 최초 2시간에 한해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이후 10분당 200원, 일일 최대 요금 5000원이 부과된다. 또 28면은 월 정기권 신청을 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은 33곳의 유료 공영주차장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김유화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수산시장 공영주차장이 수산시장 방문객과 인근 주민의 주차 편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단



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을 이용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구례군, 5억 8000만원 투입 전기차 37대 민간 보급

전기 승용차 최대 1430만원·화물차 1950만원 지원... 보조금 신청 접수

구례군이 5억 8000만원을 들여 전기자동차 37대를 민간에 추가 보급한다.

구례군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지원 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해 구례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법인, 기관이다.

군에서 2차로 보급하는 전기 승용차는 28대며, 전기 화물차는 일반 7대, 택배 2대 등 9대다. 보급 차종에 따라 구매보조금은 차등 지원된다.

전기 승용차는 최대 1430만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1950만 원을 지원한다.

군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자동차 대리점과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대리점은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순우 구례군수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사업과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2050 탄소 ZERO 청정 구례를 위해 군민과 힘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광양산 농특산물로 풍성한 명절 되세요

시, 온라인 판매관서 할인전 남도장터·우체국 쇼핑물 등

광양시가 온라인 쇼핑물 ‘남도장터’와 ‘우체국 쇼핑물’에서 추석맞이 온라인 판매관을 운영한다.

우체국 쇼핑물에서는 ‘추석맞이 광양시 브랜드관’을 오는 10월1일까지 운영한다.

광양에서 만든 매일 가공 제품과 재첩국, 기정떡, 새싹삼, 잡곡류 등을 2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쇼핑 25시, 슈퍼워러리, 주말에워머지 등 특가 행사에 참여하면 최대 33% 할인율이 적용된다.

전남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물 ‘남도장터’에서는 모든 품목이 10% 할인 판매된다.

‘광양시 특별전’에서는 20% 할인권을 쓸 수 있다. 광양시는 연말까지 지속해서 할인전을 진행하고, 온라인 쇼핑물 입점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순기 광양시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추석 명절 기획전으로 명절 선물과 상차림 부담은 덜고 광양시 농특산물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김철우(왼쪽) 보성군수가 임성택 장도차도선운영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장도사랑호 마을버스’ 열쇠를 전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보성 유일 섬 ‘장도’ 마을버스 15년만에 교체

보성의 유일한 섬 ‘장도’에 새 마을버스가 달린다.

보성군은 지난 5일 별교을 상진항에서 ‘장도사랑호 마을버스 인도식’을 열었다.

이날 김철우 보성군수는 장도 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도마을에 차 열쇠를 전했다.

장도는 보성군의 유일한 섬으로, 200여 가구 300여 명이 살고 있다.

별교 꼬막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천혜의 자연과 아름다운 풍광으로 ‘전남도 가고 싶은

섬’ ‘행정안전부 미지의 섬’ 등에 선정되기도 했다.

장도 마을버스는 주민들이 별교까지 나가는 데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보성군은 15년 넘은 오래된 버스를 바꿨다. 내년에는 오래된 버스 1대를 추가 교체한다.

장도 마을버스는 장도사랑호와 연계해 장도차도 선 운영관리위원회(위원장 임성택)가 운영한다.

군민 만족도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적정 냉·난방 온도 유지, 차량 정결유지 등 정기적인 관리도 할 계획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화엄사 ‘꽃스님’과 야간 탐방하세요

22일 오후 8~10시 기도 발원 등... 7일 선착순 접수

대한불교조계종 19교구 분사 지리산 대화엄사는 야간 사찰 탐방 프로그램인 화야몽(華夜夢) 신청자를 접수한다.

화야몽은 스님과 차담, 기도 발원, 대웅전·강황전·사사자삼층석탑 안내 등으로 이뤄져 있다.

화엄사는 지난 8월 한 달간 6차례에 걸쳐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호응도가 높아져 매월 1회 특별 편성을 하기로 했다.

이번 달에는 오는 22일 오후 8~10시에 하며 화엄사 누리집에서 선착순 22명을 신청받는다. 신청은 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할 수 있다. 첫 번째 특별 편성 프로그램의 지도 법사는



꽃스님 인스타그램 캡처

SNS에서 ‘꽃스님’이라는 별칭으로 잘 알려진 범정 스님이 맡았다.

화야몽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야간 경내 탐방은 가능하다.

화엄사는 저녁 9시까지 개방하던 산문을 지난달 1일부터 자정까지 연장 개방했고 한 달 방문객이 5000여 명에서 1만5000명으로 대폭 늘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현대제철 순천공장 ‘삼계탕 꾸러미 나눔’ 행사

현대제철 순천공장 노동조합과 임직원 23명은 지난 4일 인근 마을을 찾아 ‘삼계탕 꾸러미 나눔’ 행사를 했다.

참가자들은 삼계탕과 백김치, 건강떡 등으로 구성된 건강식 꾸러미를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150세대에 전달했다.

이번 나눔은 현대제철과 노조의 사회환원 활동 ‘H-USR 데이’의 하나로 진행됐다.

현대제철 노조와 사측은 지속해서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봉사를 펼치고 있다.

봉사 참가자들은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찾아 건강식 꾸러미를 전하고 안부를 살폈다.

성재식 현대제철 순천공장 노동조합 지회장은 (금속노조 광전지부) “앞으로도 회사와 노조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